

-아/어 보이다

~해 보이다 — 겉모습으로 판단

눈으로 보기에 어떤 모습이라고 말합니다. 형용사에 붙으며 근거는 언제나 시각적인 것입니다. 이 점이 다음 표현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: 것 같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ㅣ 또는 ㅜ	-아 보이다	좋다 → 좋아 보여요
그 밖의 모음	-어 보이다	예쁘다 → 예뻐 보여요
하다 형용사	해 보이다	피곤해 보여요
높임	-아/어 보이시다	좋아 보이세요
동작 동사에는	-는 것 같다	가는 것 같아요
과거	-아/어 보였다	피곤해 보였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아요/어요규칙을 따르며 축약도 똑같이 일어납니다: 좋아 보이다, 예뻐 보이다, 피곤해 보이다.

동작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붙습니다. 가 보여요는 ‘가는 것 같다’는 뜻이 아니며, 여기서 보이다는 ‘눈에 보인다’는 일반 동사입니다. 동사에는 -는 것 같다는 쓰십시오.

판단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. 상대의 얼굴을 보고는 피곤해 보여요라고 하고, 그 사람의 일정을 근거로 추측할 때는 피곤한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.

겉모습을 칭찬할 때도 이 형태를 흔히 씁니다: 오늘 좋아 보이세요, 젊어 보이세요.

■ 예문

- 1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.
- 2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세요.
- 3 이 옷을 입으니까 젊어 보이세요.
- 4 그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.
- 5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뻐 보여요.
- 6 어제는 좀 아파 보였어요.

■ 비교

-(으)ㄴ/는 것 같다
-아/어 보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고, 것 같다는 모든 종류의 추론에 쓸 수 있습니다. 동작 동사에는 것 같지만 쓸 수 있습니다.

피곤해 보여요. (피곤한 얼굴이다) / 피곤한 것 같아요. (피곤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)

-겠-
둘 다 눈앞의 것에 반응합니다. -겠어요는 맛이나 상상 쪽에 기울고, -아/어 보여요는 시각적 인상 자체를 전합니다.

맛있겠어요. (맛있을 것 같다) / 맛있어 보여요. (맛있게 생겼다)

일반 동사 보이다
보이다만 단독으로 쓰면 ‘눈에 보인다’는 뜻입니다. 앞에 형용사가 올 때만 ‘~해 보인다’는 뜻이 됩니다.
산이 보여요. (산이 눈에 보인다) / 높아 보여요. (높게 보인다)

■ 주의

- ✗ 많이 피곤하여 보여요.
- 많이 피곤해 보여요.
하다로 끝나는 형용사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다 앞에서 해가 됩니다.
- ✗ 그 사람이 가 보여요. — ‘떠나려는 것 같다’는 뜻으로 (×)
- 그 사람이 가는 것 같아요.
이 구문은 형용사에 붙습니다. 동작 동사와 쓰면 보이다는 원래의 뜻으로 돌아갑니다.
- ✗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어 보여요.
-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.
명사에도 -아/어 보이다를 쓸 수 없습니다. 누군가가 무엇인지 추측할 때는 인 것 같다는 쓰십시오.